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탈진리의 시대

지금은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 올해의 단어로 "Post Truth(탈진리)"를 선정했습니다. '탈진리'란 신념과 감정 등으로 진실이 왜곡되거나 무시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개인의 상상이나 특정 권력이 만들어 낸 거짓이 진리를 대체합니다.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미지와 정보만을 제공하려 합니다.**

다양한 서비스와 풍부한 정보자원 때문에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탈진리의 시대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정보의 바다'인 온라인을 통해 나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말을 거르지 않고 정보가 진실처럼 공유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퍼 나르는 정보는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처럼 위태롭기도 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사회를 '유동하는 세계'라고 부릅니다. 현대시대는 액체처럼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고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유동성의 공포'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탈진리'의 현상도 현대사회의 공포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다음세대는 통제력을 상실**

한 시대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 아모스 8장 11절 -

'탈진리의 시대'가 가져온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만이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러나 탈진리의 현상에 실망하게 된 다음 세대는 진실을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도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성경 읽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이하가 26.5%, 2시간 이하 6%, 3시간 이하 4.8%, 4시간 이하 1.6%, 5시간 이상 8.1%이며, 일주일에 평균 62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분도 안 읽는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중 20%는 집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일에 교회

에 와서 설교 본문을 읽는 것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접하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장 이상씩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성경 읽기와 기도생활과 관련한 설문 조사에서는 77%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거의 읽지 않거나 '전혀 읽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가까이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신념이 성경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참된 진리가 견고히 서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어떻게 진리를 회복할 것인가?

개혁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번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6,887개 언어 중 2,932개의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을 읽어야 했습니다. 라틴어는 5세기 이후로 죽은 언어로서 학자들만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세 교회는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했고, 라틴어로만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선택된 사제들만이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고 전파했습니다. 루터 또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부패한 생활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성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곡된 진실이 통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진리(오직 성경)를 가지고 탈진리에 맞섰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 교리와 제도에 도전장을 냈고, 승리하기 위해 끝까지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종교개혁 이후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마음껏 읽고, 성경에 대하여 마음껏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는 또 다른 탈진리의 시대 앞에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경을 구하고,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소한 마리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믿을 수 없는 기세로 팔

려 나가 종교개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읽기 혁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기념할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이 시대의 롤라드를 통해 계속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목숨처럼 사랑한 사람들로 가능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전하는 일을 위해 실제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터 200년 전,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갖 박해를 당한 롤라드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누구나 성경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15세기에 들어와 롤라드 학교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롤라드를 양육하여 롤라드는 영국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인 성경공부를 장려하고 회개와 제자도, 단순한 삶, 가난한 자에 대

한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롤라드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가정 방문과 술집 전도, 시장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설교, 식탁 대화, 성경방 초대를 통해 성경을 전했습니다. 가톨릭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잡아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번역된 영어 성경책이 몰수될 위기에 처한 그들은 스스로 성경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롤라드는 '성경이 된 사람들'이란 뜻인 동시에 '중얼거리는 자'란 뜻도 가집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가 개혁되기 전, 롤라드 운동을 통해 개인의 신앙이 갱신되는 개혁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200년 동안 뿌려진 롤라드의 피가 종교개혁의 거름이 되었고, 결국 진리의 시대를 여는 모판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롤라드가 필요합니다. 피 흘리며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롤라드 운동은 정복되었으나
소멸되지 않은 부흥운동이다.
- 에라스무스 -**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지켜온 성경이 미래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참된

진리인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개인이 먼저 개혁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해 성경을 지키고 전하는 롤라드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가장 절실하게 되살리는 길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디모데후서 3:15 -**

예코클럽은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만납니다. 성경학교를 즐겁게 참여한 어린이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곁에 가까이 두어 늘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굽은 것을 바르게 하는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 부흥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